

## 『논어정의』에 나타난 허사 설명의 특징\*

— 『경전석사』 인용을 중심으로

신 원 철\*\*

### [초 록]

본 논문은 『논어정의』(論語正義)에 나타난 허사 훈석에 대해 『경전석사』(經傳釋詞)의 인용 상황 및 기타 허사 훈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그 특징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어정의』에서는 『경전석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허사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기도 하고, 허사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전석사』로 방증, 여러 다른 의견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인용방식을 드러냈다. 허사 인용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논어』 내에 나타나는 허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풀이를 폭넓은 방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논어』에서의 허사에 대한 한 단계 발전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또한 2017년 12월 2일 한국교통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의 초고 형식으로 구두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논어정의』, 『경전석사』, 허사, 인용, 훈고, 소증  
*Lunyu Zhengyi* (論語正義), *Jingzhuan Shici*, Function Words, Quotation, Commentary, Comprehensive Annotation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방식은 『논어』에 대한 소증(疏證)으로서의 『논어정의』가 가지는 학문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파악하였다.

## 1. 머리말

본 논문은 『논어정의』(論語正義)에 나타난 허사 훈석에 대해 『경전석사』(經傳釋詞)의 인용 상황 및 기타 허사 훈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그 특징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어정의』는 청대 고증학자 유보남(劉寶楠, 1791-1855)과 그의 아들 유공면(劉恭冕, 1824-1883)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논어정의』에서는 『논어』에 대해 철저히 글자부터 기존의 논쟁까지 모두 포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어정의』는 정수덕(程樹德, 1877-1944)의 『논어집석』(論語集釋)이 나오기 이전까지 『논어』와 관련한 가장 자세한 주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논어정의』는 『논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논어정의』에서는 훈고로서 명물의 고석, 제도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허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논어』학이(學而)-2장의 ‘기위인(其爲人)’에 대한 『논어정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기위인(其爲人)에 대해 『상서대전』(尙書大傳) 주: ‘기(其)’는 발어사(發語辭)이다.

其爲人者, 『尙書大傳』注: “其, 發聲也.”

이는 “有子曰, 其爲人也孝弟.”라고 하는 문장에서의 ‘其’에 대해 풀

이한 것이다. 이와 같은 풀이는 이전의 『논어집해』(論語集解)나 『논어집주』(論語集注) 등 여러 주석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이처럼 『논어정의』는 자칫 소홀히 간과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따져가면서 풀이를 하였다. 그 속에서 『논어』에 쓰인 허사도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였다.

허사(虛辭)<sup>1)</sup>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 언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부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문장에서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데에 허사를 중심으로 단어의 구성성분과 문장의 구성 등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사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전석사』를 들 수 있다.<sup>2)</sup> 『논어정의』에서도 허사 설명을 위해 『경전석사』를 17회 언급하고 있다.<sup>3)</sup> 『논어정의』의 저자로 알려진 유보남이나 그 아들 유공면은 모두 허사 연구사 등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허사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붙이고, 『경전석사』 및 다른 주해서를 인용하여 비교 대조하는 등 꼼꼼한 설명을 더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까지의 허사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동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어정의』에 대한 훈고 연구는 『논어』 본문에 대한 해석 층차의 차이, 훈고 방법론 및 실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훈고를 통한 학술적 성취 등으로 파악된다.<sup>4)</sup> 그중 허사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

1) 여기서 허사는 실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장 내에서 글자 자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실사간의 관계, 조구(造句) 등을 드러내는 데에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품사 상으로는 전치사, 접속사, 어조사, 발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명사와 부사는 반실반허(半實半虛)라 하여 완전한 허사로 보지는 않기도 하지만, 이전에 허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도 설명의 필요에 따라 허사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倪志儻(1981), 『논맹허자집석』(論孟虛字集釋), 대만상무인서관(臺灣商務印書館), 「緒」 pp. 8-9 참조.

2) 『경전석사』에 대한 평가로는 광석량 등 저, 학이사 역(2016), 『고대중국어』, 역락, p. 25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분은 없다.

본 논문은 상기한 내용에 착안하여 『논어정의』에서 『논어』의 여러 구절에서 나타난 허사에 대해 『경전석사』의 인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허사 기술에 대한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청대 허사 연구에서 『경전석사』의 특징<sup>5)</sup>

청대(清代)는 학술사(學術史) 상으로는 고증학의 시기이다. 고증학은 기존 성리학으로 대표되는 사상과 사유를 중시하던 주관적인 학술활동에서 전거(典據)를 들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고증학 속에서 중국어 문법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허사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전석사』가 가지는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허사 연구를 크게 나누면 허사 저작 이전과 허사에 대한 본격적 저작으로 나누고자 한다. 전자는 여러 공구서가 본격적 저작의 역할을 대신

- 
- 4) 국내에서는 윤해정(2010), 「朱熹의 ‘論語集注’와 劉寶楠의 ‘論語正義’에 나타난 ‘仁’의 해석학적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논어집주』와 『논어정의』에서의 ‘仁’에 대한 해석적 차이를 혼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논어정의』의 해석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는 논문이다. 그 외에 중국에서는 陸曉華(2001), 「論劉寶楠『論語正義』的訓詁方法及特點, 安徽教育學學報 第19卷2期, pp. 80-81에서는 『논어정의』에서의 혼고방법에 대한 특징, 龔霽芃(2005), 「『論語正義』的學術成就, 宜春學院學報第27卷3期, pp. 66-72에서는 『논어정의』의 학문적 성취, 蕭剛(2008), 「劉寶楠『論語正義』訓詁研究, 蘭州大學碩士論文에서는 『논어정의』에서의 혼고, 康宇(2018), 「從『論語正義』看乾嘉學者對“實學”解經方法論的變新, 長白學刊 2018年第1期, pp. 47-52에서는 『논어정의』의 ‘실학(實學)적 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사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논어정의』에서는 청대 고증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억측을 적게 한다는 점이다.
- 5) 이 장은 신원철(2014), 「『경전석사』에 나타난 인성구의 연구, 역락, pp. 59-75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확대, 개편한 부분이다.

하였고, 허사에 대한 여러 의견이 단편적으로 나뉘었던 시기이다. 후자는 『마씨문통』(馬氏文通)에서 이른바 ‘葛郎瑪<sup>6)</sup>’라는 이름으로 문법을 논의하기 이전<sup>7)</sup> 허사를 전면에 내세워 논의했던 것을 가리킨다.

우선 언급할 것으로는 청대 이전 허사 연구에서 본격적 허사 연구 이전 허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설명을 제공해 준 훈고서는 『이아』(爾雅)와 『설문해자』(說文解字)이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아』는 일반적으로 한대(漢代) 훈고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다. 또한 그 속에 허사의 뜻풀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는 『이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허사에 대한 풀이의 예이다.

粵·于·爰, 曰也. (『이아』「석고」(釋詁))

위에 든 예는 피훈석어와 훈석어 모두 허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훈석어 ‘曰’로 된 허사 무리는 ‘粵·于·爰’이 있고, 이들은 경전 속에서 허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爰·粵·于·那·都·繇, 於也. (『이아』「석고」)

이 예에서도 ‘爰·粵·于·那·都·繇’ 등이 모두 허사인 ‘於’와 관

6) 葛郎瑪라는 것은 발음은 그리스에서 기원하고, 뜻은 글자를 나열하는 방식이니, 글을 익히는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葛郎瑪者, 音原希臘, 訓曰字式, 猶云學文之程序也.” 『馬氏文通』「序」).

7) 『마씨문통』은 1898년에 출판되었다.

8) 『이아주소』(爾雅注疏)에서의 괘박(郭璞) 주에서는 『서』(書) 「홍범」(洪範)의 “土爰稼穡(흙은 농사짓고 수확하는 것이다)”, 『시』(詩) 「청묘」(淸廟)의 “對越在天(하늘과 짝을 이룬다.)”과 『시』(詩) 「유월」(六月)의 “王于出征(왕께서 정벌하러 나가시어서.)”을 제시하였다(書曰: 土爰稼穡, 詩曰: 對越在天, 王于出征).

련이 있다. 이처럼 『이아』는 다양한 훈고의 내용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허사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아』에서의 허사 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단점은 해당 부분의 허사에 대한 정확한 용법을 알기 힘들고, 용법이 혼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금 든 예인 “爰·粵·于·那·都·繇, 於也.” 중에서 “爰·粵·于·那·都”는 문장의 앞에서 의미 없이 쓰이는 부분으로 등장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그렇지만 ‘繇’는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치사 ‘于’로서 쓰인다. 또한 ‘于’는 ‘於’와 용법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앞에서 이미 언급한 용법 외에도 전치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아』에서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sup>9)</sup>

『설문해자』는 기본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허사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乃是 이끌어내는 허사 중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乃, 曳  
詞之難也. (『설문해자』 卷五上 乃部)

毋는 금지를 나타내는 허사이다. 毋, 止之髣也. (『설문해자』 卷十  
二下 毋部)

앞의 예는 접속사 ‘乃’에 대한 설명이고, 뒤의 ‘毋’는 금지사로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詞(髣)’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거나 허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허사를 가리킬 때에는 ‘詞’ 또는 그와 발음이 동일하고 뜻이 유사한 ‘辭’를 사용하였다.

9) 참고로 왕인지(王引之)는 『경의술문』(經義述聞)에서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로 보지 않고 전치사 ‘于’의 용법으로 보고 있다. 『경의술문』 이아(爾雅) 항목 참조.

그렇지만 『설문해자』에서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형체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글자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주로 제시할 뿐, 허사로서의 의미를 내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而’는 수염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뿐, 허사로서의 용법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는다.<sup>10)</sup> ‘於’도 까마귀를 나타내는 ‘烏’의 이체자로 제시하고 있을 뿐<sup>11)</sup>,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탄사나 전치사로서의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허사를 드러내는 데에 충실하지 못하다. 허사는 기존 글자의 의미에 가차라는 형식을 통해 허사의 의미를 덧씌우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찍이 완원(阮元)은 『경전석사』 「서」(序)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아』와 『설문해자』 두 책에 의거해서 옛 성현(聖賢)의 경(經)과 전(傳)의 어기(語氣[詞氣])를 설명하는 것이 옛날의 뜻에 가장 가깝다. 그렇지만 『설문해자』는 단지 만들어진 글자에 대해서만 풀이하였고 가차(假借)로 쓰인 글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아』는 풀어놓은 것이 완전하지 않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攸’를 ‘所’로만 뜻풀이할 줄 알지 ‘迪’과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10)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 卷九下 而部: “수염이다. 상형이다(須也. 象形.)”(이는 단옥재(段玉裁) 주(注)에서 『예기』(禮記) 「예운」(禮運)의 정의(正義)에서 인용한 『설문해자』를 근거로 고친 것이다. 이서본(二徐本)에서는 “뺨에 난 털이다. 털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頰毛也. 象毛之形.)”로 되어 있다.

11) 『설문해자』 卷四上 烏部: “象古文烏省.” 이에 대한 단옥재의 주에서 이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글자는 아마도 고문(古文) 중에서 뒤에 나타난 것이다. 이 글자가 나타난 후에는 또한 ‘于’와 ‘於’가 고금자의 관계가 된다. 『이아』 「석고」와 『모시』(毛詩) 전(傳), 경전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注) 등에서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亏, 於也.” 일반적으로 경(經)에서는 ‘于’를 많이 사용하고, 전(傳)에서는 ‘於’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는 이 글자, 즉 ‘於’자로 쓰지 않는다(此字蓋古文之後出者. 此字既出. 則又于於爲古今字. 釋詁、毛傳、鄭注經皆云. 亏、於也. 凡經多用于. 凡傳多用於. 而烏鳥不用此字.)”

‘言’이 ‘我’로 뜻풀이하는 것만을 보고<sup>12)</sup>, 그것을 ‘閒’으로 뜻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각하였다.<sup>13)</sup>

賴爾雅說文二書，解說古聖賢經傳之詞氣最爲近古，然說文惟解特造之字，而不及假借之字，爾雅所釋未全，讀者多誤，是以但知攸訓所而不知同迪，但見言訓我而忘其訓閒。

그 후 위(魏)의 장읍(張揖)이 지은 『광아』(廣雅)에서도 허사에 대한 설명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이아』를 의식하면서 작성한 책이기 때문에 『이아』에서의 단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극복하면서 허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乎，詞也。<sup>14)</sup> (『광아』「석고」)

이는 『설문』의 설명을 간략히 한 것으로<sup>15)</sup>, 확실히 피훈석자에 대해 허사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어떠한 허사인지에 대해 직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전의 『이아』와 『설문해자』에서의 설명 방식과 비교해보면 『광아』에서는 ‘乎’가 허사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운서(韻書)인 『광운』(廣韻)이나 『집운』(集韻) 등에서도 허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12) 『이아』「석고」에 “言，我也。”와 “言，閒也。”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言，我也.”만을 언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13) 『이아』「석고」에서 言은 閒이라 하였는데, 즉 허사인 閒이다.

14) 이는 『광아』 卷四 「석고」(釋詁)의 “日·吹·惟·載·每·雖·兮·者·其·各·而·烏·豈·也·乎·些·只，詞也。”에서 추려낸 것이다. 이전 판본에서는 ‘詞’ 뒤에 ‘也’가 빠져 있어 앞의 ‘豈’ 뒤의 ‘也’에서 끊고서는 뒤의 문장과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였으나 왕념손(王念孫)의 『광아소증』(廣雅疏證)에서 ‘詞’ 뒤에 ‘也’를 추가하였다. 왕념손(2000), 『광아소증』, 강소고적출판사(江蘇古籍出版社), p. 124 참조.

15) 『설문해자』 卷五上 兮部 乎字: “乎，語之餘也。”

어조사이다. 語助. (『광운』 上平 七 之韻 ‘而’字에 대한 설명)  
 『설문해자』에서는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허사, 즉 ‘모두’라 하였다.  
 『說文』俱詞也. (『집운』 平聲 十四 皆韻 ‘皆’字에 대한 설명)

위의 예는 운(韻)을 설명하는 운서인 『광운』과 『집운』에서도 뜻풀이인 훈고를 할 때 허사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허사에 대한 설명은 훈고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사에 대한 본격적인 저작은 원대(元代)에 시작되었다. 노이위(盧以緯)의 『어조』(語助)는 허사를 다른 훈고적 설명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허사만을 다루는 것으로서 본격적 허사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는 유사한 허사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후 허사에 대해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也·矣·焉’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은 후 “是句意結絕處, ‘也’意平, ‘矣’意直, ‘焉’意揚. 發聲不同, 意亦自別.”(이들은 문장에서 끝맺는 곳을 의도한다. ‘也’는 평서문을 의도하고, ‘矣’는 직접적임을 의도하고, ‘焉’은 억양이 올라가는 것을 의도한다. 발성이 다르니, 뜻 또한 저절로 구별된다.)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매우 주관적인 형태로, 이에 대한 문헌적 증거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sup>16)</sup> 이러한 점은 『어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허사에 대한 전문 저작의 효시로서의 가치는 중요하다.<sup>17)</sup>

이후 명대(明代)를 지나 허사에 대한 연구는 청대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유보남의 『논어정의』 초판본이 등장하는 1866년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고자 한다.

청대의 허사 연구는 원인림(袁仁林)의 『허자설』(虛字說)에서 출발한다. 『허자설』에서 유사한 허사를 묶어 한꺼번에 제시하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조어사』와 동일하다. 원인림은 여기에 더하여 각각 허사의 기운

16) 노이위(1988), 『조어사집주』(助語辭集注), 중화서국(中華書局), p. 1 참조.

17) 신원철(2014), pp. 65-67 참조.

과 소리, 즉 ‘기(氣)’와 ‘성(聲)’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18)</sup> 즉 각각이 가지는 ‘어기’와 ‘발음’에 대해 검토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설명도 앞에서 언급한 『조어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정밀한 연구로는 유기(劉淇)의 『조자변략』(助字辨略)이 있다. 『조자변략』은 운(韻)을 기준으로 허사를 배열하여 검색에 도움을 주었고, 용례를 제시하여 허사의 용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전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허사간의 연관성과 시기적 엄밀성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sup>19)</sup>

각 학자의 찰기(札記) 속에서도 허사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염약거(閻若璩)의 『사서석지』(四書釋地)에서의 예를 들고자 한다. 염약거의 『사서석지』는 『사서』(四書)에서 나타나는 지리나 인물 등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명물이나 훈고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서적이다.<sup>20)</sup> 그중 三續卷중에 ‘敬忠以勸’ 항목이 있다. 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나는 그 때문에<sup>21)</sup> 『논어』의 ‘敬忠以勸’이라고 하는 문장은 아마도 계강자(季康子)가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충성스럽고,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권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아야 할 것이다. ‘以, 與也. (以는 與로 쓰인 것이다.)’

18) 『허자설』 ‘毋·勿·不·弗’ 항목: “毋之氣嚴肅, ‘勿’之氣決絕, ‘不’之氣收縮, ‘弗’之氣輕緩.” (‘毋’의 기세는 엄숙하고, ‘勿’의 기세는 단호하고, ‘不’의 기세는 오그라들고, ‘弗’의 기세는 가볍고 완만하다.) 이때 엄숙하고, 단호하고, 오그라들고, 가볍고 완만하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乃’ 항목: “乃字之聲, 有拗轉, 直指兩用.” (‘乃’자가 허사로서 가지는 소리는 비틀기도 하고 직접 가리키기도 하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19) 신원철(2014), pp. 70-73 참조.

20) 『사고제요』(四庫提要) ‘四書釋地’ 참조.

21) 앞에서 한유(韓愈)의 문장에서 以를 與로 풀이하는 내용을 들고 있다.

……余因悟『論語』敬忠以勸，蓋康子欲使民敬，使民忠與使民勸於善也。宜補註曰：以，與也。

이와 같이 찰기의 여러 내용 중 허사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 외에 왕인지의 『경의술문』에서도 통설하(通說下)에서 허사를 실사로 오해하는 부분[語詞誤解以實義]에 대한 여러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허사 연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연구로는 왕인지(王引之)의 『경전석사』를 들 수 있다. 『경전석사』의 장점으로서는 성모를 통한 배열로 허사간 의미적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예문의 시기를 동한(東漢) 이전으로 한정하여 상고중국어의 시기 확정 및 용법 등에 대한 엄밀성을 추구하였다. 단점으로는 다루고 있는 허사의 양이 160항목 256개로 비교적 적고<sup>22)</sup>, 설명이 전면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sup>23)</sup> 그럼에도 당시에 나온 전문 허사 연구서로서는 최고봉에 속하기 때문에 『논어정의』에서는 『경전석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청대 허사의 연구는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 중 『논어』와 관련한 부분은 『논어정의』에 수용되어 허사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토대 속에서 『논어정의』에서 허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는지를 『경전석사』 인용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앞에서 언급한 『조자변략』의 경우 항목으로만 476 항목이다.

23) 이에 대해서는 신원철(2014), pp. 170-178 참조.

24) 『논어정의』에서 허사 설명을 위해 인용한 다양한 서적 중에서 『경전석사』는 17회이다. 그에 비해 『허자설』과 『조자변략』은 단 1회도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 3. 『논어정의』에서 『경전석사』 인용

『논어정의』에서는 허사에 대해 훈석하였는데, 주로 인용과 판단에 의한 확정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논어』에 등장하는 구절을 풀이하여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경전석사』를 인용하여 허사를 설명하는 부분 위주로 풀이를 하면서 『논어정의』에서 허사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어정의』에서는 『경전석사』를 총 17회 인용하였다. 이는 『경전석사』에서 『논어』를 인용하여 분석한 69회<sup>25)</sup>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모든 부분을 단순하게 옮겨 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논어정의』에서 『경전석사』를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호	편명 <sup>26)</sup>	원문	『논어정의』에서의 인용 내용
1	爲政-07	今之孝者, 是謂能養.	王氏引之經傳釋詞, “是謂能養, 是與祇同義, 故薛綜注東京賦曰, 祇, 是也.”
2	爲政-20	使民敬忠以勸.	閻氏若璩四書釋地, “說以勸者, 以, 與也.” 王氏引之經傳釋詞云, “以勸者, 而勸也.” 二訓並通.
3	里仁-06	其爲仁矣, 不使不仁者加乎其身.	矣者, 起下之辭, 王氏引之經傳釋詞, “矣也, 一聲之轉.”
4	雍也-05	毋! 以與爾鄰里鄉黨乎!	王氏引之經傳釋詞謂‘毋’與‘無’通, ‘無’訓爲‘不’, 連下讀. 與武又異, 而義亦遜.
5	雍也-06	山川其舍諸?	王氏引之經傳釋詞, “諸, 之乎也. 急言之曰諸. 徐言之曰之乎.” 据王說, 則此注‘之乎’二字, 卽釋‘諸’字也.

25) 기준에 따라 인용 숫자가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전석사』에서 표제어로 인용하여 설명을 추가한 부분으로 한정하였으며, 상어(常語) 등의 예를 들 때 제시된 부분은 제외하였다.

26) 편명 속의 번호는 劉寶楠 撰, 高流水 點校(1990), 『논어정의』, 중화서국에서 나누

번호	편명 <sup>26)</sup>	원문	『논어정의』에서의 인용 내용
6	雍也-16	而有宋朝之美.	王氏引之經傳釋詞訓‘而’爲‘與’，引墨子尚同‘聞善而不善，皆以告其上’韓子說林‘以管子之聖而隲朋之智’，‘而’，皆與也。而與，聲之轉，說與注異，亦通。他家疑‘而’爲不誤，或謂而如通用，如或也。皆未是。
7	雍也-26	‘井有仁焉.’ 其從之也.	‘也’，皇本作‘與’。王氏引之經傳釋詞謂‘也’與‘歟’同義。
8	泰伯-21	禹，吾無間然矣.	王氏引之經傳釋詞，“然，猶焉也。檀弓曰‘穆公召縣子而問然’鄭注‘然之言焉也’論語‘禹吾無間然矣’，‘若由也不得其死然’然字並與焉同義。”
9	鄉黨-25	色斯舉矣，翔而後集.	王氏引之經傳釋詞，“色斯者，狀鳥舉之疾也。色斯，猶色然，驚飛貌也。(이하 예시 인용)”案，王說亦通。
10	先進-22	曾由與求之間.	‘曾’猶乃也。見王氏引之經傳釋詞。
11	先進-24	方六七十，如五六十， 求也爲之.	王氏引之經傳釋詞云，“如猶與也，及也。‘方六七十，如五六十’，‘宗廟之事，如會同’如字並與‘與’同義。(예시인용)‘如’與‘與’聲相近。故如訓爲與，與亦可訓爲如。”
12	顏淵-08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以，用也。爲，語助辭。說見王氏引之經傳釋詞。
13	憲問-16	如其仁，如其仁.	王氏引之經傳釋詞，“如，猶乃也。”此訓最當。
14	季氏-01	孔子曰，求！ 無乃爾是過與？	是，猶寔也。說見王氏經傳釋詞。
15	季氏-01	且爾言過矣.	‘矣’與‘邪’同。王氏經傳釋詞謂此‘矣’字與‘乎’同義，是也。
16	陽貨-01	曰，不可.	王氏引之經傳釋詞，“有一人之言而自爲問答者，則加曰字以別之。論語云云，孟子告子篇‘爲是其智弗若與，曰非然也。’是也。”
17	陽貨-13	鄙夫可與事君也與哉？	注以‘與’爲我與之也。王氏引之經傳釋詞解此文云，“與猶以也。下文‘患得’‘患失’，皆言鄙夫所以不可事君之故，非謂不可與鄙夫事君也。顏師古匡謬正俗曰，‘孔子曰，鄙夫可以事君也與哉。’李善注文選東京賦曰，‘論語曰鄙夫不可以事君。’變‘與’言‘以’，正與經旨相合。”

이를 검토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전석사 내용을 통해 바로 허사의 설명을 대체하거나 근거로 삼았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위정-7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의 효도는 단지 기를 수 있음만을 가리킨다. 개와 말까지도 모두 기를 수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왕인지의 『경전석사』에서 말하였다. “‘是謂能養’이라는 구절에서 ‘是’는 ‘祇’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설종(薛綜)의 『문선』(文選) 「동경부」(東京賦) 주(注)에서 말하였다. ‘祇는 是의 뜻이다.’”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王氏引之『經傳釋詞』, “‘是謂能養’, 是與‘祇’同義. 故薛綜注東京賦曰, ‘祇, 是也.’”

위 예문에서 『논어정의』에서 바로 ‘是’를 ‘祇’라고 설명하고 풀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석사』의 해설을 인용하였다. 일반적인 해석과는 차이를 두는 것으로, ‘是謂’를 ‘이것을 가리켜’가 아닌 “‘단지’~만을 말한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지시사로서의 ‘是’가 아닌 부사 ‘祇’로 해석하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인용은 바로 해석에서의 차이점 또한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인용도 있다.

이인-06

“그가 인자한 행동을 할 때 인자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한다.”에서, ‘矣’는 아래 부분을 일으켜 이끌어내는 허사이다. 왕인지의 『경전석사』에서 말하였다. “矣와 也는 일성지전(一

어 놓은 장구의 번호를 가리킨다.

聲之轉)<sup>27)</sup>이다.”

“其爲仁矣，不使不仁者加乎其身。” 矣者，起下之辭，王氏引之經傳釋詞，“矣也，一聲之轉.”

이 부분에서 『경전석사』 권4 矣 항목에서는 “矣，猶也也.”라는 풀이만을 제시했다. 이때에는 ‘矣’와 ‘也’ 사이의 허사로서의 기능적 유사성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논어정의』에서는 ‘起下之辭’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이후에 『경전석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들고 있다.

둘째, 여러 다른 주장 중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 속에서도 층차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 의견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제시한 설 모두가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위정-20장

계강자(季康子)가 물었다. “使民敬、忠以勸，如之何？<sup>28)</sup>”이에 대해 『정의』에서 말하였다. 염약거의 『사서석지』에서 말하였다. “以勸’에서의 以는 與이다.” 왕인지의 『경전석사』에서 말하였다. “以勸’이라는 것은 ‘而勸’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 뜻풀이가 모두 통한다.

季康子問：“使民敬、忠以勸，如之何？”正義曰：閻氏若璩『四書釋地』說：“以勸者，以，與也。”王氏引之『經傳釋詞』云：“以勸者，而勸也。”二訓並通.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염약거의 『사서석지』와 왕인지의 『경

27) 일성지전은 훈석어와 피훈석어 사이에 성모(聲母, 해당 글자의 시작 자음)를 포함한 발음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의미적 혹은 기능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훈고술어이다. 신원철(2014), p. 108 참조.

28) 이하의 설명에서 본문의 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문 그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석사』를 동시에 인용하면서 이들 모두 뜻풀이에 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때는 전체 의미상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염약거의 설명대로 분석하면 “백성들에게 ‘敬’, ‘忠’ 그리고 ‘勸’을 시키다”라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즉 ‘民’이 간접 목적어라면 ‘敬’, ‘忠’, ‘勸’이 직접 목적어가 되면서 이들 사이에 ‘與’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접속사 ‘與’는 명사성 성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연결된 이후에도 해당 구절이 명사적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이와는 달리 왕인지의 설명대로 분석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고, 충성을 시키고 그것을 권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왕인지는 ‘以’를 ‘而’로 풀이하였는데, 이 ‘而’는 명사성 성분을 연결하지 못하고 술어를 연결하여 각각의 구조가 술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논어정의』에서는 어느 쪽도 의미상 순통하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에 대한 의견을 병기하였다. 이는 판단의 유보로도 볼 수 있지만, 아래에서 들 예를 통해 보았을 때 항상 판단을 유보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유보의 성격도 있지만, 의미상 어느 쪽도 크게 흠결이 있지 않고 『논어』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 하나는 다른 의견과 『경전석사』의 해설을 병기하고 『경전석사』의 의견에 대해 찬동하는 부분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현문-16

“如其仁.”에 대해 왕인지의 『경전석사』에서 말하였다. “如是 乃와 유사하다.” 이 뜻이 가장 들어맞는다.

“如其仁.” 王氏引之經傳釋詞, “如, 猶乃也.” 此訓最當.

이 부분에서 『논어정의』는 호소훈(胡紹勳)<sup>29)</sup>의 『사서습의』(四書拾

29) 호소훈(胡紹勳, 1789-1862), 자는 문보(文甫), 호는 양천(讓泉)으로, 청나라 때 안

義)에서는 『광아』(廣雅)를 인용하여 ‘如’를 ‘均’으로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한 통한다’[亦通]고 하였다. 그리고 유월(俞樾)의 『제자평의』(諸子平議)에서 양웅(揚雄)의 『법언』(法言)을 근거로 하여 ‘인정하지 않는 말’[不予之辭]로 풀이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논어의 본지와는 맞지 않는다.”[其與論語本旨, 不必合也.]고 하였다. 『논어정의』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다른 의견 중에서 『경전석사』의 의견을 가장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어정의』에서의 이러한 판단은 가장 적절한 훈고를 찾기 위한 비교 중에서 『경전석사』의 의견이 가장 타당했기에 나온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17개 중에서 그 의견에 반대하거나 호소 훈이나 유월의 의견처럼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판단하자면 『경전석사』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논어정의』에서는 『경전석사』를 인용하여 허사를 풀이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분은 실상 고증학자로서의 훈고 방식을 허사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풀이는 『논어집해』나 『논어집주』 등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고증학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논어정의』 허사 설명의 특징

이 장에서는 『논어정의』에서 제시된 허사 설명을 통해 그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논어』 내에 나타나는 허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풀이를 폭넓은 방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예

---

휘(安徽) 직계성(績溪城) 사람으로, 족형(族兄) 호배휘(胡培輩)에게 배우고 소학(小學)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사서습의』(四書拾義) 등이 있다.

로서 『경전석사』를 들어 그 예를 들면서 설명하였지만, 그 외에도 기존 경전의 주석과 당대의 연구서 등에서 허사의 자료를 취합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이-10장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지요?(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항목에서 『공양전』(公羊傳) 환공(桓公) 6년의 전(傳): “아마도 환공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其諸以病桓與?)” 이에 대한 하휴(何休) 주(注): “其諸는 허사이다.”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者, 公羊桓六年傳: “其諸以病桓與?” 何休注: “其諸, 辭也.”

이 부분에서는 한 글자뿐만 아니라 두 글자로 구성된 허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논어정의』에서는 『공양전』 하휴의 주를 인용하여 허사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지적한 이유는 형병(邢昺)의 소(疏)에서 ‘其諸’가 아니라 ‘諸’를 허사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sup>30)</sup>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제시된 훈고를 인용하여 허사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연구 성과 내에서도 그 의견을 취합하였다. 3장에서 『경전석사』를 중심으로 든 부분은 이러한 방식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학이-07장

또한 『광아』(廣雅) 「석언」(釋言)에서 말하였다. ‘易은 如의 의미이다.’ 왕념손(王念孫) 『광아소증』(廣雅疏證)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논어』에서 ‘賢賢易色’이라 하였는데, ‘易’이라는 것은

30) 邢昺疏: “諸、與皆語辭.” 참고로 주희(朱熹) 집주(集注)에서는 “其諸, 語辭也.”로 파악하고 있다.

如의 의미이다. 이 구절은 덕을 좋아하는 것을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 풀이 또한 통한다.

又廣雅釋言：“易，如也。”王氏念孫疏證引之云：“論語‘賢賢易色’，‘易’者，如也。猶言好德如好色也。”此訓亦通。

이 부분은 ‘賢賢易色’ 중 ‘易’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 앞에서 『논어정의』에서는 ‘易’에 대해 輕略의 의미가 있다는 방식으로 논의하였다.<sup>31)</sup>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광아』에서 ‘易’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여기에서는 더하여 왕념손의 『광아소증』을 인용하여 ‘易’이 ‘如’와 의미적으로 통한다고 하는 점을 밝혔다. 이는 당시의 연구 성과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이해한 결과 해당 부분을 수용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에서 발전한 부분으로, 그저 단순한 인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논어』에서의 허사에 대한 설명에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들었던 ‘이인·06’에서의 허사에 대한 풀이 등이 그러한 설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비록 허사에 대해 전문적인 풀이를 하지 않았지만 『논어정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단순한 인용을 통한 설명을 넘어 허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당시의 허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사와 관련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논어정의』는 허사 연구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논맹허자집석』(論孟虛字集釋)과 같은 전문 서적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sup>32)</sup> 비록 아래와 같이 비판적 검토가

31) “是易有輕略之義”

32) 『논맹허자집석』의 서문에서 『논어』는 유보남의 『논어정의』를, 『맹자』는 초순의 『맹자정의』가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허사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못하다고 평하였다(『論孟虛字集釋』緒論：“劉寶楠論語正義二十四卷，焦循孟子正義三十卷，能擷諸家精英，而集義疏大成。然其中大抵以推闡義理與考據名物爲要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허사에 대한 심도 깊은 풀이는 이후 문법적 지식을 통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어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허사 연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많은 『논어정의』에서도 상세한 주석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천려일실(千慮一失)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학이-1

‘不亦說乎’라는 것은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 “不亦善乎!”(또한 기쁘구나!) 이에 대한 조기(趙岐)의 주(注): “不亦이라는 것은 亦이다.”

‘不亦說乎’者, 孟子滕文公上: “不亦善乎!” 趙岐注: “不亦者, 亦也.”

이 ‘亦’에 대해 『경전석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논어』 학이의 “不亦說乎”(기쁘지 않은가?)는 “不說乎”이다. “不亦樂乎”(즐겁지 않은가?)는 “不樂乎”이다. “不亦君子乎”(군자답지 않은가?)는 “不君子乎”이다.

즉 ‘亦’이라고 할 때에는 ‘亦’이 등장하기 이전에 즐거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 때문에 ‘~ 또한’이라는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논어』에서는 이 세 가지 설명 이전에 즐거워하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왕인지는 ‘亦’을 어조사로 취급하여 풀이한 문장에서 제외하고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不亦에서 不를 제외한 조주(趙注)와는 다른 설명 방식이다. 『논어정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 없이 조주를 선정한 것으로 추측된

務, 二於疏解虛字辭氣, 則未盡詳明.”) 倪志憫(1981), 「緒」 p. 1 참조.

다.33) 다음 예를 보도록 하자.

학이-4장

‘여붕우교이불신호(與朋友交而不信乎)’라는 문장에 대해, 『예기』(禮記)「단궁」(檀弓)의 주(注): ‘여(與)’는 ‘미치다[及]’의 뜻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훈(訓)이다.

與朋友交而不信乎者, 『禮』「檀弓」注: “與, 及也.” 此常訓.

이는 『예기』「단궁」 “聖人之葬人, 與人之葬聖人也, 子何觀焉?(성인이 다른 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과 다른 사람이 성인을 장례지내는 것에 대해 그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에 대한 정현의 주인 “與, 及也.”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경전석사』 권1 ‘與’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의 ‘與’와 ‘及’은 접속사로서 명사 또는 명사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與’는 ‘同’ 등으로 풀이되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及’에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에서처럼 『예기』「단궁」에서 정현이 설명하고 있는 ‘與’와는 같지 않다. 이는 유보남이 본문을 확인하지 않고 ‘與’와 ‘及’이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훈고를 보고, ‘與’와 ‘及’이 모두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레짐작하여 연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어정의』에 나타나는 허사에 대한 설명의 특징을 보았다. 크게 정리하자면 이전의 설을 인용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허사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그중에는 몇몇 실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다양한 허사에 대한 설명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사에 대한 『논어정의』의 의도를

33) 혹은 조주의 설명 방식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의견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점을 『논어정의』의 결점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어정의』의 저자인 유보남이나 그 아들 유공면이 허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낸 적은 없다. 따라서 허사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공헌이 그리 크다고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논어정의』에서 허사에 대해 주석을 붙이고, 『경전석사』 및 다른 주해서를 인용하여 꼼꼼한 설명을 더하였다. 그 이유는 『논어정의』가 추구한 정의(正義), 즉 상세한 주석인 소(疏)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구의 일환인 허사에 대한 파악은 『논어정의』에서 추구하는 고증학적 엄밀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이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수 부분 또한 『논어』의 집대성을 추구하면서 전반적인 문맥 파악과 소증(疏證)에 전념하였기에 비교적 허사에 있어서는 엄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신 당시 이미 발표된 『경전석사』 등 허사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대폭 채용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동시대 연구 결과에 대한 적극적 수용은 직접적으로 허사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논어』를 정의함에 있어 필요한 허사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수용의 적극적 자세는 유보남의 『논어정의』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서적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한다.

34) 중화서국(中華書局) 판 『논어정의』 내에 수록된 「본서(本書) 점교(點校) 설명」에서 언급한 『논어정의』의 특징 중 “2. 건가학풍(乾嘉學風)을 발양(發揚)하여 주석 중에 문자훈고(文字訓詁), 사실고정(史實考訂) 및 경의(經義)를 상세히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劉寶楠 撰, 高流水 點校(1990), 점교, p. 4 참조

## 5. 맺음말

지금까지 유보남의 『논어정의』에 나타난 허사에 대한 설명 방식과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청대 허사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대 이전의 허사 연구로서 『이아』·『설문해자』 등에서 허사를 언급한 내용 뿐만 아니라 『광아』, 『광운』, 『집운』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격적 허사 연구서로서 원대 노이위의 『조어사』를 제시하였다. 이후 『논어정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대의 허사 연구를 조망하였다. 허사 전문 연구서로서 『허자설』, 『조자변략』, 『경전석사』와 학자들의 찰기 등에서 허사를 언급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논어정의』에 준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논어정의』에서 허사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의 예로서 『경전석사』의 인용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전석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허사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기도 하고, 허사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전석사』로 방증, 여러 다른 의견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인용 방식을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논어정의』에서 허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논어』 내에 나타나는 허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풀이를 폭넓은 방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논어』에서의 허사에 대한 한 단계 발전된 설명을 제시한 것이 있음을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방식은 『논어』에 대한 소증(疏證)으로서의 『논어정의』가 가지는 학문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파악하였다. 즉 『논어정의』는 청대 고증학의 전형적인 연구서로서 상세한 설명 속에서 허사도 언급되었고, 그 속에서 허사 연구에 대한 발전적 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논어정의』 전반에 걸친 허사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후속 연구에서 기대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자 료】

- [清] 劉寶楠 撰, 高流水 點校(1990), 『論語正義』, 中華書局.  
[漢] 許慎 撰, [清] 段玉裁 注(198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宋] 丁度 等奉敕撰(1959), 『集韻』, 新興書局.  
[宋] 朱熹(1983), 『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宋] 陳彭年 重修(1976), 『宋本廣韻』, 黎明文化事業公司.  
[元] 盧以緯 著, 王克仲 集注(1988)『助語辭集注』, 中華書局.  
[清] 劉淇 著, 章錫琛 校注(1954), 『助字辨略』, 中華書局.  
[清] 閻若璩 撰(1968), 『四書釋地』, 臺灣商務印書館.  
[清] 王念孫 撰(2000), 『廣雅疏證』, 江蘇古籍出版社.  
[清] 王引之 撰(2000),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清] 袁仁林 著, 解惠全 注(1989), 『虛字說』, 中華書局.  
李學勤(2000), 『爾雅注疏』, 北京大學出版社.  
\_\_\_\_\_(2000), 『春秋公羊傳』, 北京大學出版社.  
倪志憫(1981), 『論孟虛字集釋』, 臺灣商務印書館.

### 【논 저】

- 郭錫良 등 저, 학이사 역(2016), 『고대중국어』, 역락.  
신원철(2014), 『『경전석사』에 나타난 인성구의 연구』, 역락.  
윤혜정(2010), 「朱熹의 ‘論語集注’와 劉寶楠의 ‘論語正義’에 나타난 ‘仁’의 해석학적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康宇(2018), 「從『論語正義』看乾嘉學者對“實學”解經方法論的變新」, 長白學刊 2018年第1期, pp. 47-52.  
龔霽芃(2005), 「『論語正義』的學術成就」, 宜春學院學報第27卷3期, pp. 66-72.  
陸曉華(2001), 「論劉寶楠『論語正義』的訓詁方法及特點」, 安徽教育學學報 第19卷2期, pp. 80-81.  
蕭剛(2008), 「劉寶楠『論語正義』訓詁研究」, 蘭州大學碩士論文.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9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Annotations of  
Function Words in *Lunyuzhengyi* (論語正義):  
Focusing on Quotes of *Jingzhuanshici*

Shin, Wonchul\*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annotations of function words in *Lunyuzhengyi* (論語正義, A comprehensive annotation of the Analects) by way of quoting *Jingzhuanshici* (經傳釋詞, An explanation of function words in Chinese classics), and to discuss its characteristics.

There are many systems of annotations of function words in *Lunyuzhengyi* (論語正義). For example, *Lunyuzhengyi* (論語正義) sometimes quotes *Jingzhuanshici* instead of explaining function words, and sometimes quotes *Jingzhuanshici* after explaining function words in order to present the evidence.

The characteristics of *Lunyuzhengyi*'s annotations of function words are as follows: it discusses many aspects of function words by presenting many examples, and adds its own opinion for further explanations. This shows that *Lunyuzhengyi* (論語正義) is located in a comprehensive annotation of the Analects.

---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